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6절)



가족 사진: 리비아 정부 당국에서 제공한 휴양지(?)에서

안녕하세요, 로고스호프에서 신선교사 가족입니다.

로고스호프 선교선에 탄 이후로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저희의 계획이나 생각을 더 내려놓게 됩니다. 배의 이동 항로들이 저희가 계획된 대로 되지않고, 기대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더욱이 겸손해 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음을 배워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8월 초에 원래 가기로 했던 북아프리카 L국가, 리비아의 두 항구(미스라타, 트리폴리)가 모두 취소 되었었습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몰타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보내면서 지역교회와 서점에 오는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동시에 북아프리카 방문을 계속해서 모색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수단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들



선내 어린이 연극 '위대한 보물' 공연 중에



로고스호프 서점을 찾은 많은 사람들

몰타에서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단 난민캠프에 매일가서 영어를 가르치며 난민(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길거리 문화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 교회들을 방문하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며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몰타한 인교회와의 교제도 잊을 수 없는 사역 중 하나였는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내외분이 추방을 당하고 한국에 3년 정도 머무시다가 몰타 한인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 하신 지 약 1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저희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곳 청년들과 교제도 하고 선교사님 내외분의 따뜻한 섬김도 받으며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 사역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교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에게는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8일 로고스호프가 리비아, 벵가지 **Benghazi** 항에 입항 할 수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는 패쇄적인 무슬림 국가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42년간 통치하다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과도 정부 하의 공화국이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2014년 내전의 아픔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BTS 팬들인 리비아 소녀들



서점 계산대에서 리비아 청년과 함께



매일 같이 약 5000여명이 방문했던 뱅가지 항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선교선에 리비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길을 여셨고 리비아 정부 당국의 허가로 저희는 뱅가지 항에서 8일 동안 방문 할 수 있었습니다. 신사랑 선교사에게 이번 리비아 방문이 더 뜻 깊었던 것은 이번이 신 선교사가 로고스호프와 함께 리비아 뱅가지 항구에 두 번째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호프는 12년 전에 **카다피 생전 2010년** 트리폴리, 미스라타, 뱅가지에서 한 달 동안 리비아를 방문하여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독재자 카다피가 나라의 왕으로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아주 패쇄적인 정치를 하여 마치 북한과 같은 나라였다면, 이번에 방문한 리비아는 두 정권의 대립과 내전의 상처로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안타까운 여러 모습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번 항구 정박 당시 리비아 정부 당국의 아주 까다로운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비밀 요원들과 군대가 총동원 되어 선상에 올라와 서점 개장 시간통제, 인원 출입 통제, 현지인과 교제 시 감시하는 등등, 당국에서 세운 규칙이 2시간마다 바뀔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서점을 폐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8일간의 개점을 통해 약 37,000여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고 서로 연락처를 나누며 수많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내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외국과의 교류가 없는 리비아 사람들은 60여개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행복해 했고, 특별히 K-POP을 좋아하는 소녀들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더할 나위 없이 저희의 존재를 특별히 생각해 주었습니다. 일주일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리비아는 저희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리비아에 이어 북아프리카 T국, 튀니지아로 가기로 했던 경로가 막히고 저희는 다시 몰타로 8월 18일에 돌아왔습니다.

튀니지아로 가기로 했던 여정이 취소되면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비게 되어 9월 15일에 가기로 했던 알바니아 블로러 항구에 9월 1일 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의 정박과 관련하여 항구에 연락하고 정박 허가를 얻기 위한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고 기다리면 저희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날짜보다 보름이나 빨리 알바니아 블로러 항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미리 오게 하신 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해주세요

1. 리비아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하루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2. 리비아 뱅가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진 우리의 사랑이 싹이 터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3. 알바니아 블로러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힘과 격려를 더해주시고,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4. 신사랑&도은혜, 주안, 이안 선교사 가정이 은혜 안에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알바니아, 블로러 9월 1일 ~ 10월 6일

알바니아, 두러스 10월 6일 ~ 10월 19일



QR코드 링크



카카오채널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